

茶 산업, 다양화로
도약을 꿈꾸다



차(茶) 한 잔이 주는 여유로움
마음의 치유와 안식을 안겨줍니다

햇차의 싱그러움을 담아낸 차 한 잔,
정갈함 한 모금이 고요함을 깨웁니다.

비오는 창가에 마주한 내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집니다.

차(茶)는 때로는 격식을 갖춘 듯,
어려운 듯 어렵지 않게,
멀리 있는 듯 멀지 않게
늘 우리 곁에 머무르며 일렁이게 합니다.

녹차, 홍차, 우영차, 콤부차, 작두콩차.....
계절이 익어가는 지금,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는 차 한 잔 어떠신가요?



CONTENTS

SECTION 1.

꿈&농업

06 기획특집

- 차(茶)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다져야 할 때
오형완(2019)_차문화산업학
- 국내 차(茶)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 지역에서 세계로,
녹차산업을 이끌다!
(재)하동녹차연구소

14 팜테크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16 글로벌농업

기능성+편리성을 중시하는
해외 차시장의 현재와 가능성

20 차산업 트렌드

밀레니얼 세대, 차(茶)에 빠지다

SECTION 2.

미래&농업인

24 전남명인

광양, 매실 **홍쌍리** 명인

26 팜&마케팅

보림제다 **임광철** 대표

30 청년이 온다

영암귀리부인 **박정윤** 대표

34 남도 여기!

자연으로 원기충전!
영암 1박 2일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40 농기원 기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42 귀농정보

고흥군·완도군 귀농귀촌 정책

44 농업인 건강정보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
상지 근골격계 질환 조심!

46 농기술정보 1

경관작물, 심고 싶은데 언제 씨를 뿌리지?

48 농기술정보 2

초여름 과수 공동 병해충 주의하세요!

50 교육프로그램

8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52 JARES NEWS

58 남도축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서종분
편집기획 김덕현 신성범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0-07
진행·제작 명진씨앤피(02-2164-3000)

초록의 싱그러움과 향긋함을 담은
차(茶) 한 잔의 여유가 그리운 계절,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차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에 강한
품종개발과 제품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제법 풍부해진 전남농업기술원 차(茶)상품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ECTION

1



꿈&농업

예부터 전남지역은 기후조건이 알맞아 좋은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녹차 외에도 농가에서 직접 지은 농산물로 가공하여 건강차 위주로 상품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차산업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6 기획특집 차(茶)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다져야 할 때
오형완(2019) 차문화산업학
국내 차(茶)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지역에서 세계로, 녹차산업을 이끌다!
(재)하동녹차연구소
- 14 팜테크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16 글로벌농업 기능성+편리성을 중시하는
해외 차시장의 현재와 가능성
- 20 차산업 트렌드 밀레니얼 세대, 차(茶)에 빠지다

차(茶)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다져야 할 때



우리나라 차산업은 지난 2007년 농약검출 파동 이후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관련 차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공식품 또한 다양화되면서 점차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수출을 위한 상품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차(茶)산업의 현재와 문제점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자료 한국 차(茶)산업의 발전 과제, 오형완(2019), 『차문화산업학』, 46(1): 27-56p

우리나라 녹차산업화는 1969년 정부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에 103개 농가가 약 470ha의 다원을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보성 인근인 고흥, 영암으로까지 대규모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국내산 가루녹차, 티백녹차와 중국(대만)산 차에서 농약(EPN)이 검출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녹차 관련 가공품 형태로 소비가 늘고 있는 하지만, 콤부, 작두콩, 블랙보리 등 대체 차가 출시되면서 녹차시장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차산업의 현재

우리나라 차재배 역사는 오래되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차를 즐기는 마니아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차나무 품종이 없어 품종 육성 및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간한 하동녹차연구소의 '우리나라 산림자원 차나무 특성평가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현재 160여 개의 품종이 개발되었고, 중국은 52개, 대만은 19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렇듯 차나무 육종 선진국은 50년 이상의 육종 역사와 함께 다량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차나무 품종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품종 육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 차는 많은 강점과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2007년 생산량인 4,080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떡, 빵, 아이스크림의 재료 등 차의 쓰임새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녹차의 1인당 소비량은 2012년 6,767g에서 2018년 3,321g으로 계

1인당 연간 다류(녹차) 섭취량 변화 추이

(단위: g)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녹차	6,767	5,263	3,533	3,321

자료 국민영양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국민영양통계는 1인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1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수치임.

** 표본조사수가 높은 녹차를 기준으로 연간 섭취량을 작성함

*** 2018년도 자료는 농식품부 자료중 1인당 1일소비량 91g을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임.

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세계 차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녹차의 수출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산업의 문제점

녹차시장의 정체 내지는 침체 이유는 생산단계에서의 약점(Weakness)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품종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부족은 차생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래종은 맹아, 생육 및 수확시기 등이 균일하지 않아 기계화가 곤란하며, 기후변화로 혹한기 영하 15℃ 이하에서 차나무가 80% 이상 고사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높은 재래종 품종비율은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발효차, 기능성 등 다양한 제품화에 한계가 많다. 또한 대다수인 소규모 농가들은 저마다 생산방법을 달리 하고 있어 생산자 간 품질차이가 크고 다양한 생산기술에 대응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관된 품질의 차 생산과 기후변화나 불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신 품종 육성 등에 대응하는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크다. 이를 보완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녹차 재배지는 대부분 경사도가 있는 임야나 밭으로 기계화에 불리하다.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품질기준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차는 맛, 향, 색상, 성분함유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그 품질이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평가 기준이 없다. 대부분 농가 직영식 가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자 주관에 따라 품질을 평가되고 있어 품질의 일관성이 없고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브랜드 유지와 정착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들이 있어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안이 없다.

특히 우전, 곡우, 세작, 작설 등 채엽시기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시기별 분류에 의한 기준이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합

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한국차학회에서는 2017년 ‘국내 차 평가 기준안 현황 및 학술적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으며, 2019년 (사)차중앙협의회는 녹차 평가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해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미흡하다. 침체되어 있는 녹차시장과 녹차산업을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 20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 1월 21에 이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차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 기술개발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차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경영안정 지원, 차의 생산촉진 사항 등 차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책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차의 품질 규격화와 고급화를 위해 거점별 현대화된 공동가공센터를 구축·지원하고 있다.

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우리가 평상시 우리 차산업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차 소비의 둔화에 의한 판로확대가 어려움을 시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행사를 통한 우리 차 알리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의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개발 및 보급과 기술표준화를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품질관리,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농가들의 조직화와 규모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안전한 차, 다양한 차, 경쟁력 있는 차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차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품종개발, 평지다원, 후계농 육성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가 이력관리(품종, 시비관리, 수확관리 등)기록, 그리고 현장중심조직 구성을 통한 현장변화는 우리나라 차산업 발전의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 차(茶)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다!

최근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를 위해 습관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이들이 늘면서 건강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녹차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차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차가 부상함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국내 차(茶)산업 발전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성과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글·사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국내 차(茶)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은 2,744ha(2,597호)이고, 그 중에서 전남은 1,291ha(1,414호)로 전국 대비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 3,878톤 중에서 전남이 45.5%인 1,764톤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의 차 생산액은 400억 원 정도로 국내 생산액 850억 원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산업은 지난 10년간 녹차 안정성 문제로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다시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티바나'를 출시하는 등 2017년 이후 차류 판매액이 20% 이상 증가되면서 차 메뉴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국내 차(茶)산업의 3대 주산지(보성, 하동, 제주)인 보성에 자리 잡고 녹차산업 육

성 메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한 차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과 신품종 육성, 신육성 우량품종 농가 조기 보급, 차나무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개발과 국내 차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녹차, 홍차, 가루녹차 등 차 종류별 제다방법 표준화, 찻잎이용 다양한 차 관련 제품개발과 상품화, 차재배 농가 기술지원, 해외 차시장 개척 등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차나무 신품종 육성 및 우량품종 대량증식 보급

차산업연구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비 재래종 및 외국 수입종을 대체하기 위해 내재해·고기능성 차나무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차밭 80%는 재래종 다원으로 생산성이 낮고 품질이 불균일하여 기계 수확의 어려움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차산업연구소는 2008년 차나무 국가 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외 유전자원 480종을 수집·보존하면서 육종 모본으로 활용하여 국내 최



표 1. 연도별 재배면적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농가수(호)	4,780	4,101	3,820	3,737	2,597
	재배면적(ha)	3,264	3,004	2,901	2,906	2,744
전남	농가수(호)	2,367	1,771	1,668	1,608	1,414
	재배면적(ha)	1,599	1,434	1,203	1,191	1,291
전국 대비 전남 면적비율(%)		49.0	47.7	46.3	41.0	47.1

표 2. 연도별 생산량과 생산액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생산량(톤)	3,586	2,700	3,915	3,985	3,878
	생산액(억원)	1,011	930	899	900	850
전남	생산량(톤)	2,291	1,473	1,568	1,438	1,764
	생산액(억원)	495	444	373	369	400
전국 대비 전남 생산량 비율(%)		63.9	54.6	40.1	36.1	45.5

※ 참고: 특용작물생산실적(농림축산식품부)





초로 차나무 1호 신품종 ‘참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품종을 육성하였다. 2011년에 육성한 ‘상녹’은 국내 최초로 교배 육성 차나무 품종으로 내한성과 내병성이 강하고 특히 차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녹차용으로 알맞다. 그리고 2018년에 육성한 ‘향녹’은 이상저온에 대응, 동해에 특히 강하고, 카테킨 함량과 생산성도 높다. 또한 이들 육성한 차나무 우량품종을 대량증식 후 농가에 보급하여, 현재까지 참녹, 보향 등 육성품종의 우량묘목을 23만 6,000주(11.8ha)를 보급하였으며 매년 10%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나무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

국내 육성 차나무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차나무 재배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하부에 차나무를 재배한 결과, 첫잎 수량은 11% 향상되고 품질은 노지 재배 첫잎에 비해 차이가 없어 향후 생육과 수량, 경제성 분석을 통해 차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대응 첫잎의 안전생산을 위해 보온, 차광, 관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나무 스마트팜 재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년 이른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 피해를 경감하여 차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차 제품 생산기술 개발 및 기능성 음료 산업화

그동안 차 소비촉진을 위해 덫음차, 증제차, 홍차, 떡차, 가루녹

차, 블렌딩차 등 기본적인 차 종류별 제품생산 기술을 정립하여 생산농가 교육 및 가공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산업화를 이끌어 왔다.

차에는 폴리페놀류와 아미노산류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 성분에 생리활성을 구명하고 이들을 소재화해 건강지향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고기능성 가바차, 분말차, 향비만차, 조혈성 녹차,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음료, 항당뇨제품, 다이어트스틱분말제품 등을 개발하였고,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특히 음용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보성군, 차생산자조합, (주)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녹차음료 4종(RTD 밀크티, 티믹스 2종, 액상베이스)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또한 차 추출물 발효음료인 콤포차의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3월 6일 청년벤처기업 (주)씨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한 현장실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차나무의 어린 가지를 로스팅하여 만든 ‘이지차(兒枝차)’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의 저카페인 차 음료로 활용 가치가 높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지차

블렌딩차 티퍼레이드



차 추출물 이용 생활용품 개발 및 상품화

차잎은 본래 연간 3회 수확하는데 첫물차는 상품성이 높아 수확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두물차와 세물차 수확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 산업연구소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두물차와 세물차의 차잎을 이용하여 차의 유용성분인 폴리페놀류인 카테킨류의 최적 추출 기술과 카테킨의 강력한 항산화제, 항균제로서 효능을 구명하고 이를 활용한 손세정제, 천연염색 의류 소재 등 기능성 생활제품 개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에 대응하여 '손세정제 제조기술 산업화'를 위해 유기농 화장품 전문업체인 (주)에코먼트에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손세정제 2종 4만 개를 시장에 출시하여 상품화에 성공하였는데 이번에 출시된 손세정제는 전

남 보성산 유기농 차잎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또 생산제품의 다양화와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브랜드네이밍 전문업체인 아이코닉브랜드와 글러벌 헬스케어 기업인 티유사이언스(주)와도 차잎 추출물을 이용한 손세정제 제조기술, 차 가공제품 연구개발, 제품생산, 브랜드화, 유통, 판매 등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새기술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산 홍차 해외시장 개척

최근 차산업 시장은 녹차 중심에서 홍차와 블렌딩차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유일 차전문 연구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호주, 러시아, 중동, 싱가포르 등 해외 차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저비용 홍차 제조기술 및 브랜드를 개발,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코리아블랙퍼스트'라는 상표로, 지난해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홍차를 수출하였다. 특히 홍차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비하여 국산 홍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고품질의 유기농 홍차로 세계 차시장에 진출하려는 국산 차(茶)의 수출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7. 10. 29.

호주 홍차수출 협약



2019. 9. 30.

싱가포르 홍차수출 계약

2020. 3. 23.

(주)씨플러스와 콤부차 발효음료 대량생산 산업화 업무협약



2020. 4. 16.

아이코닉브랜드-티유사이언스(주) 차잎추출물 손세정제 제조기술 차 가공제품 상품화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국내 차(茶)산업을 이끌고 있는 3대 지역 중에서 재배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차(茶)를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2년도 4월 1일 농촌진흥청 소속 국가기관으로 '전라남도농촌진흥원 보성차시험장'이 설립된 이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시험장과 녹차연구소를 거쳐 2014년 '차산업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손동모 소장 이하 연구팀장 1명, 연구실장 1명, 연구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차재배의 안정화를 위해 우리나라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과 함께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상품화를 위한 제품 개발, 대용차 신제품 개발, 수출용 제품 개발 및 농가육성 등 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호주와 싱가포르에 홍차 수출과 함께 차를 이용한 화장품, 국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커피재배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우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 대표전화 061-850-2700

주요성과

신품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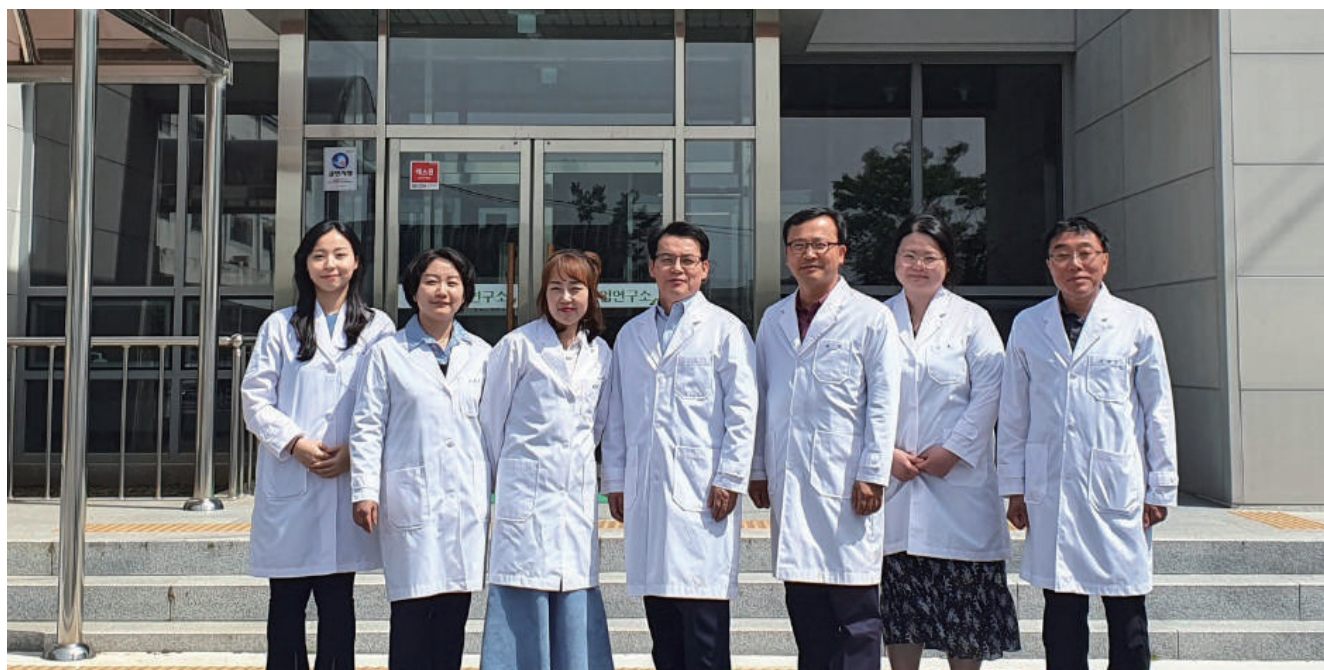
차나무 태양광 차나무 재배기술
참녹, 보향 등 신품종 재배기술
스마트팜 재배관리 시스템 개발

차 상품화

차 종류별 제다방법 연구, 대용차 신제품 개발
차 기능성 식품 소재화 및 신제품 개발
차 음료 제조기술 및 대량생산 산업화 연구

차 수출화

차 수출용 제품개발
차 수출농가 육성
대량화 기술지원



지역에서 세계로, 녹차산업을 이끌다!

(제) 하동녹차연구소

지리산과 섬진강이 포근히 감싸안은 고장 하동의 명물, 녹차. 녹차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이곳에 세계적인 명차 육성에 매진하는 하동녹차연구소가 자리한다. 하동군 지역 발전의 중추인 녹차산업을 이끌어가는 하동녹차연구소의 주요 사업과 비전을 소개한다.

글·사진 하동녹차연구소(제)

경상남도는 신라시대부터 차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1,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 중에서도 하동군은 녹차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했으며 문화, 규모, 지리적 여건 등 차재배에 적합한 환경 여건을 지니고 있다. '하동 전통 차농업'은 지난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효자 산업이다. 하동녹차연구소(2006년 설립)는 녹차를 연구하고, 식·의약품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탄탄한 장비 인프라 기반의 제품개발, 생산·가공, 인증, 마케팅 일체를 수행하며 하동녹차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하동녹차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농민·기업을 지원하여 차(茶)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하동녹차연구소는 논문 발표 58건, 기술이전 18건, 제품화 34건, 특허 등록 및 출원 59건, 상표 및 디자인 등록 31건 등 크고 작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 중 최초로 국가기술표준법에 따른 KAS(한국제품



인정기구) 공인 제품인증기관이 됐다. 또한 2019년에는 하동녹차연구소 산하 가공공장이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하동녹차연구소 우수연구사례

하동의 전통 야생차 농업은 지난 2017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역사적·문화유산적 보존가치가 높다. 그중 하동 천년차나무는 828년 도입된 이래 1,200여 년간 재배되고 있는데 연구소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엽록체 서열이 밝혀지면서 세계유전자은행 등록을 앞두고 있다. 차씨오일 연구개발도 한창이다.

아미노산과 지방산, 비타민E 성분을 함유한 차씨오일은 항산화·항염, 모발 및 두피 개선, 비만개선, 항암, 혈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E 성분이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

국지성 기상 경보 서비스 구축(2015)
하동군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 등

하동 천년차나무 유전체 연구
녹차품종 식별, 최고 차나무 식별

항염증 연구
발효차 향아토피효과, 항알러지 효과

우수연구사례

차씨오일 연구
항산화/항염, 비만개선, 항암, 혈전치료 효능

미생물 발효차 연구
금화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인 금화차 개발

잭살홍차 연구
국제슬로푸드협회 추진 '맛의 방주' 등재

동녹차연구소는 차나무 열매를 짠 기름(Tea seed oil)을 주재료로 한 '충무공 이순신 크림'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도 했다. 미생물 발효차 연구도 하동녹차연구소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대표적으로 금화균(Eurotium sp.)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인 금화차(Golden Flower Tea)를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지성 기상 경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동군에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동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발효차 중 하나인 잣살홍차를 상품화하여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추진하는 맛의 방주(Ark of Taste) 등재(2015년), SPC 블렌딩 제품을 출시(2019년)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지역색 살린 하동녹차의 새로운 변신

경남 하동의 주요 차재배지역은 '차(茶)'를 재배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특히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제조법으로 색깔과 맛 모두 독특하다. 이러한 개성을 반영한 상품개발도 하동녹차연구소의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녹차를 주재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은 항아토피, 항알레르기 효과를 입증하며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푸, 트리트먼트, 치약, 녹차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마스크 팩, 비누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동에서 재배한 녹차 잎 추출물과 녹차 씨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해 상품화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이고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 국내외 시장 진출 등을 꾀하며 하동녹차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과 뷰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차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하동녹차연구소는 하동녹차의 세계화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소재와 기술의 융·복합, 친환경 차(茶) 등 이색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하동녹차연구소 주요활동

2019. 11.

국내 첫 KAS 공인
인증 획득



2019. 3. 31.

하동녹차연구소
100만 볼 수출탑 수상



2018.

서울 코엑스 티월드 2018
차 박람회 참가



2018. 5. 2.

미국 라스베이거스 2018
월드 티 엑스포 참가



녹차 자외선 차단제



잣살홍차



금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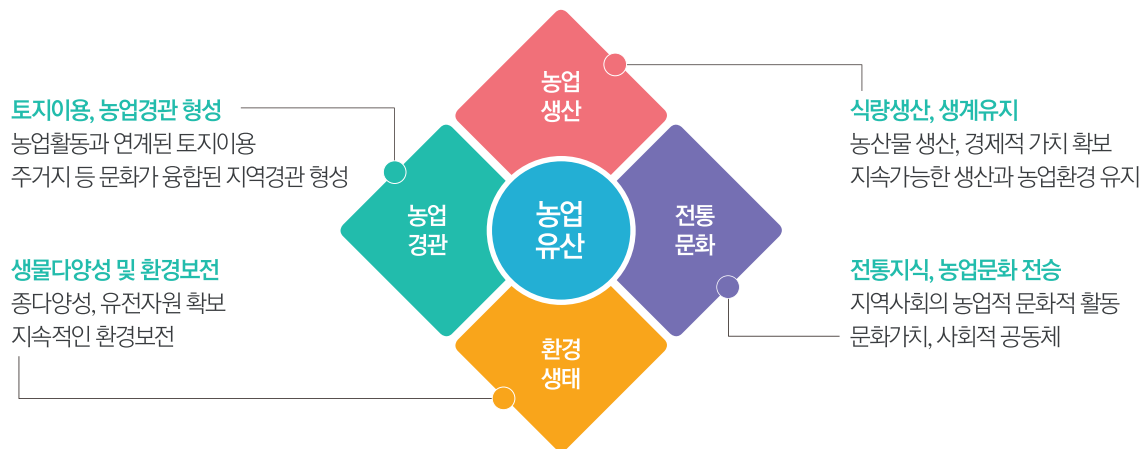
차씨오일 크림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며 식량을 생산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며 독특한 문화를 보전한 지역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8년까지 21개국 57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15개 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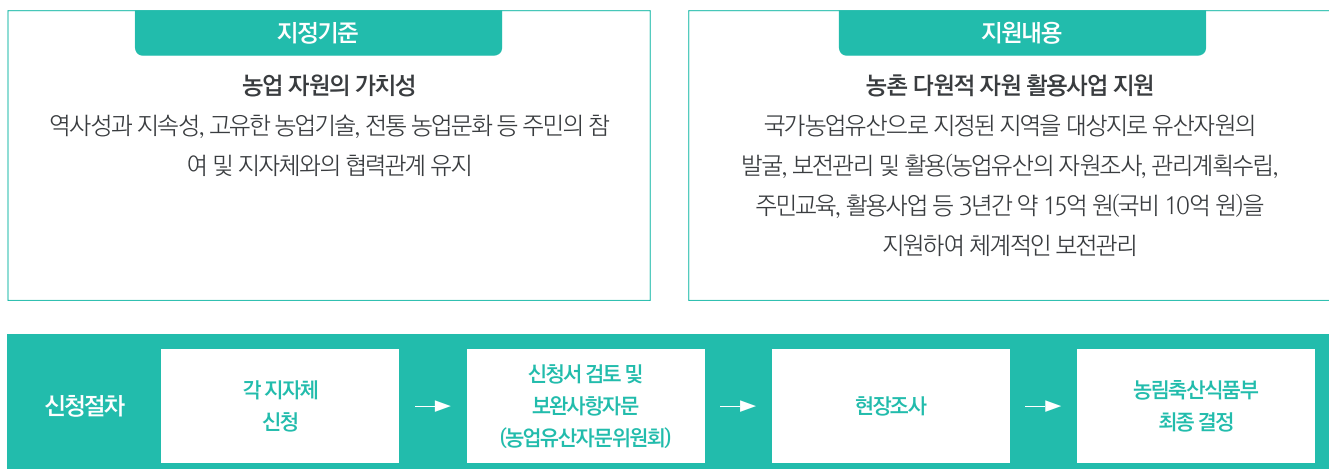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고 발달해온 농업기술,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 자원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업(어업)자원(법 제30조의 2·3)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과 지정기준

2012년 3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2월 농어업 유산의 국가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고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2015년 2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농업유산), 제30조의 3(어업유산)에 의하여 제도가 확립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과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되어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농업기술 또는 기법을 보유하고,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업문화의 보유,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 형성,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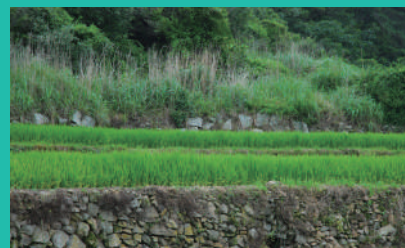
2020년 6월 현재까지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모두 15개에 이른다. 지난 2013년 전남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논을 시작으로 매년 1~3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선정되고 있다. 이중 전남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충남 금산 인삼농업, 경남 하동 전통 차농업 등 네 가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등재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할 농업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방식으로도 또 하나의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보자.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전남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2013)

- 돌을 쌓아 계단식 논을 조성, 토지의 가용면적을 극대화한 농업 산물
- 일반 계단식 논과 형태는 비슷해 보이나 차별화된 관개 시스템 보유
-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청산도 주민들의 삶의 양식 반영(다양한 농경방식과 문화 발달)
- 주변 산림 - 주변부 - 구들장논의 생태순환축 형성(농업생물다양성 제고)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등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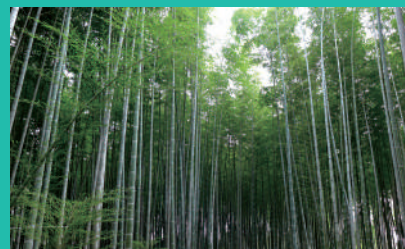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2014)

- 경작지 부족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 생계유지 수단
- 지리산권 기후와 지형을 이용해 조성한 지역 고유의 농업활동 산물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경관(계곡 - 마을 - 돌담 - 경작지 - 산림을 아우르는 군락지)
- 아름다운 농업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축제 명소로 정착(산수유꽃축제, 산수유열매축제)
- 산수유 생산 및 수작업 과정에서 주민 협업문화 전승(제배, 수확, 제핵, 건조 등)



제4호 담양 대나무밭(2014)

- 기후변화 대처에 유용한 수종으로서 대나무에 대한 관심 촉구(세계대나무·등나무네트워크, INBAR)
- 값싸고 성장이 빨라 농촌소득 증대와 탄소 감축에 기여
- 대나무의 영양 및 건강 효능이 웰빙 트렌드를 넘어 그린 푸드로 재조명
- 죽엽주, 죽순, 죽실반, 약재 등 음식의 주·부재료로 널리 이용
- 특유의 청량감과 향균효과로 섬유산업 신소재로 개발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2018)

- 계단식 차밭을 이용한 토양유실 방지 및 수자원 관리 기능
- 초생재배, 낙엽 및 부엽토를 이용한 친환경 비배관리
- 동식물 서식지·은거지 역할과 다양한 생물종의 유입
- 전통 다례문화 전승을 통한 차문화 형성
-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보성녹차 수출기반 조성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2018)

- 13개의 다소와 보림사를 중심으로 한 차 문화의 형성과 전파
- 1천년 역사를 지닌 전통 발효차 제다법의 계승(증열, 덫음, 문쇄, 성형, 초벌건조, 구멍뚫기, 2차건조, 지끈꺾기, 발효)
-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야생차밭의 보전
- 산림자원과 공생하는 차농업 생태계 유지





기능성 + 편리성을 중시하는 해외 차시장의 현재와 가능성

세계 차시장, 이 중에서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RTD 차음료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국내 가루녹차는 중금속 오염 등의 우려가 없어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현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food 열풍 등의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RTD 음료를 선호하는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음료류 시장), 가루녹차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2019)

밀레니얼 세대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음료 시장 트렌드

현재 세계 음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 세 가지는 지속 가능성과 건강 기능성, 맞춤형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출생)는 전 세계 식품업계가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자 그룹으로 부상했는데, 이들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취향'을 소비 키워드로 삼고 있다.

시콜라 또한 2011년, 100% 식물 성분으로 만든 '그린 보틀'을 출시한 바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도 부상해 우유 대신 두유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도 보인다.

지속 가능성

소비자들은 제품의 패키징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여 환경과 인간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지난 2015년,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밀을 이용한 '플랜트 보틀'을 출시하고 펩



코카콜라 플랜트 보틀



펩시 그린보틀



미 콤부차 케비타(Kevita)

건강
가능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줄인 음료의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끌어난 대표적인 발효음료인 콤부차는 홍차, 허브차, 녹차를 우려낸 물에 설탕을 비롯한 각종 박테리아 유익균을 첨가해 만든 발효차의 일종으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물질이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가 높다. 펍시콜라는 미국의 콤부차 브랜드인 케비타(Kevita)를 2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맞춤형
제품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은 ‘개성화 소비’를 불러왔으며 식품업계에선 이제 개개인의 소비 취향을 중요시하는 ‘맞춤형 제작’이 주요 판매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마다 요구하는 영양 성분이나 맛, 향이 달라지면서 세분화된 식음료가 출시되는 추세다.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인 유기농 재료에 대한 수요로 홈메이드 음료 소비도 호황을 맞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RTD 차음료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음료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탄산음료(45.5%)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생수가 22.3%, RTD(Ready-To-Drink, 즉석에서 마

실 수 있는 형태) 차음료가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TD 음료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장에서 구입해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음료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당 음료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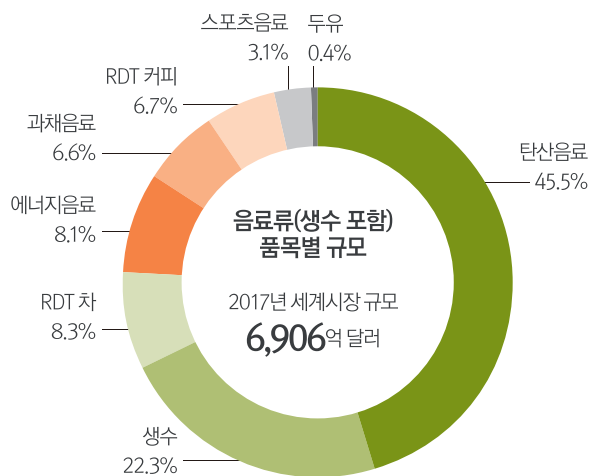
미국의 RTD 차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2017년 기준 6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3년 대비 33.6%의 성장률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과 저렴한 탄산음료 제품에 대한 선호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품의 원산지, 생산지, 재배방법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유기농 및 자연친화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더욱 견고해 지고 있다.

중국

2017년 기준 중국의 음료류 시장규모는 441억 달러이며, RTD 차음료 시장은 연평균성장률 2.2%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토종기업들은 중국 약초 등 한약재를 활용한 건강음료를 출시하고 있고 자연, 천연재료 음료도 증가하고 있다. 차, 허브, 과일 등을 블렌딩 한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 성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증가와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저당, 발효 등 건강을 중시한 영양성 음료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17년 기준, 일본의 음료류 시장규모는 2013년 이래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특히 RTD 차음료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음료류 시장은 RTD 차음료가 2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RTD 커피(27.6%), 과채주스(14.8%) 순이다. 2017년 기준 RTD 차음료는 2013년 대비 11.0% 성장한 것은 물론, 전체 음료 판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인 것으로 분석된다.



Global Market Data, Canadean intelligence 2017

국가별 RTD 차음료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4,976.8(6.0)	5,276.3(6.3)	5,848.4(6.7)	6,339.9(7.2)	6,648.4(7.4)
중국	15,373.1(38.0)	16,310.8(37.7)	15,585.2(35.7)	14,930.6(34.5)	14,841.0(33.6)
일본*	12,384.2(27.4)	12,599.0(27.5)	12,946.6(28.2)	13,381.6(28.7)	13,748.3(29.4)
베트남*	517.2(38.4)	732.9(43.0)	842.1(43.6)	820.9(40.3)	843.9(38.4)
인도네시아*	910.9(27.8)	1,091.5(29.0)	1,190.9(29.0)	1,329.5(30.0)	1,356.7(31.0)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3

* 100엔=0.91달러/100동=0.004달러/100루피아=0.007달러(2018년 평균환율 기준, 우리은행)

베트남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음료류 시장은 RTD 차음료가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3.6%를 기록하였으나, 베트남에서 RTD 차음료로 인한 식중독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RTD 차음료가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춤하는 사이, 생수는 무설탕, 무첨가물이라는 장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수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RTD 차음료도 무설탕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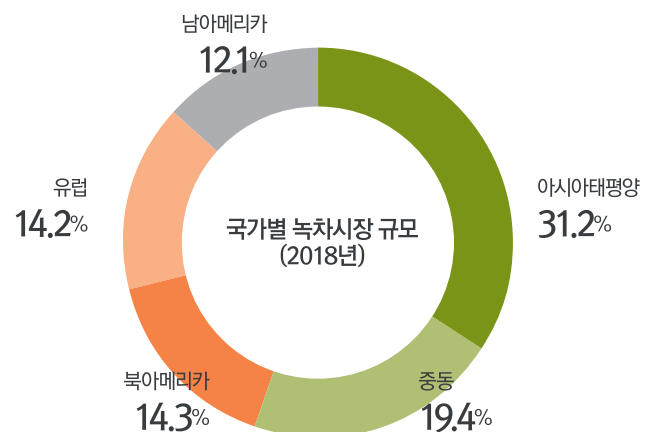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음료시장은 RTD 차음료가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탄산음료 16%, 기능성음료 14.6% 순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경기 침체와 실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음료류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매력 감소는 음료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욱 작은 용기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인기를 끌며 다양한 구색을 갖춘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저렴한 기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기능성 음료 소비자들은 RTD 차음료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가루녹차의 해외 진출 가능성

건강을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음료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앞으로는 녹차음료의 성장 또한 예측되는 바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 차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녹차는 홍차, 허브티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세계 녹차시장에서 나라별 시장은 크기순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이 31.2%, 중동 지역(MEA)이 19.4%, 유럽이 14.2%이다.



자료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녹차 및 차음료 제품에 대한 가구당 연간 총액은 약 90달러다. 녹차와 비교하여 RTD 차음료 제품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기호보다 편리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가루녹차 또한 RTD 형태의 음용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면 시장 진입 및 판매 범위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빠르게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국 가루녹차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가루녹차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료품질 향상과 마케팅 경쟁력이 필요하다. 감칠맛 증가를 위해 최소 3주 이상 차광재배를 하고 외적품질을 가늠하는 녹색도 증가를 위해 95% 이상, 차광기간은 20일 이상을 유지하는 등 내적·외적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가루녹차의 주요수출국인 일본·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기농 차밭 관리와 안전한 가루녹차 생산도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만큼,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에 대한 살균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녹차의 건강음료 이미지를 앞세워 구미권 및 유럽 시장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Kpop, Kfood 등 한류문화를 활용한 ‘코리아’ 브랜드(Kmatcha)를 적극 활용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차(茶)에 빠지다

한때 커피시장에 밀려 기를 못 펴던 차(茶)가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건강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원료를 도입하며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도 공격적인 차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 차(茶)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글 김용환 칼럼니스트

건강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차(茶)시장

최근 들어 커피 업계가 차(茶)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커피시장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건강 트렌드로 불황을 이겨내겠다는 의도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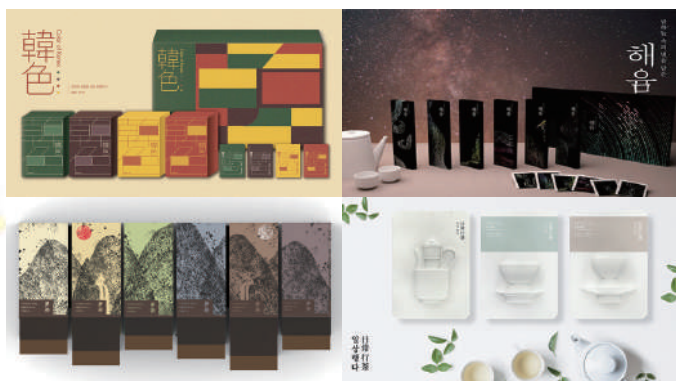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수입량은 약 14만 3,000톤으로 2017년 약 14만 6,000톤보다 2,600톤가량 감소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시장에서 수입량 감소는 국내 커피시장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다류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건강과 다이어트, 힐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하던 한국인들의 음용 습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위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커피 업계는 앞다퉈 차(茶)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체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제품의 다양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색원료, 블렌딩 티로 소비자의 호기심 자극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리차, 홍차, 녹차로 대표되던 차 음료 시장은 최근 다양한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더욱 성장하는 추세다. 녹차, 우롱차, 홍차의 세 가지 차를 블렌딩하거나, 기존에 만나보기 어려웠던 색다른 재료를 활용한 차 음료도 등장했다. 특히 카카오닙스나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

는 마카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슈퍼푸드를 활용해 다이어트 및 디톡스, 피로회복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히비스커스 꽃, 도라지, 야관문 등 색다른 재료를 활용한 제품도 눈에 띈다. 비염에 좋다고 알려진 작두콩차는 효과를 본 소비자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케이스다. 소비자들이 농가에 문의를 하며 전국의 작두콩 재배량이 늘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3~4년 전 미국에서 '건강음료'로 유행하기 시작한 콤부차도 밀레니얼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홍차나 녹차를 우려낸 물에 설탕과 효모균을 첨가해 발효한 콤부차는 시원한 탄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 덕분에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패키지 디자인에 차의 감성을 담다

밀레니얼 세대에 어필하기 위해서 패키지도 젊어지고 있다. 어떤 물건이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 변천을 거듭하게 마련이다. 차 패키지 역시 단순히 물건을 포장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디자이너 티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타바론’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차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과 기분에 맞는 차를 디자인해주는 브랜드다. 티 소믈리에가 차를 블렌딩하고, 차의 맛을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패키지에 시작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디자이너 티를 완성한다. 차의 맛을 시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국내 브랜드인 오설록과 공드린도 선물하기 좋은 아기자기한 패키지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패키지 디자인은 우리 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차 농가에 무료로 제공한다.

공격적인 마케팅 펼치는 카페 프랜차이즈

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도 공격적인 차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차잎과 향신료 등으로 이색적인 차 메뉴를 선보이는 차전문 브랜드 ‘티바나’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18년 차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특화 매장인 ‘티바나 인스파이어드’는 전 세계 스타벅스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2016년 9월 스타필

드하남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는 현재 총 6곳이다.

이디야도 자체 차 브랜드인 ‘이디야 블렌딩 티’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디야 블렌딩 티는 지난 2016년부터 이디야커피가 차시장을 겨냥해 티백과 제철 과일청을 혼합해 선보인 독자적인 차 브랜드다. 스무디킹 역시 독일 프리미엄 차 브랜드 ‘로네펠트’와 공급계약을 맺고 신메뉴 4종을 선보이고 있다.



인기 높아지는 프리미엄 차시장

차의 인기로 프리미엄 차시장 또한 대중화되고 있다. 전문 티 하우스도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다. 싱가포르의 유명 티 브랜드 ‘TWG 티카페’와 프랑스 브랜드 티 카페인 ‘다만 프레르 티룸’,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티 브랜드 ‘스티븐스미스티’ 등이 이미 국내에 자리 잡아 다양한 맛과 향의 차를 선보이고 있다. 다만 프레르는 세계 최초로 가향티를 제조한 프랑스 티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고 있고, 스티븐스미스티에서는 중국 백차에 캐모마일 허브를 섞은 블렌딩 티가 인기다. 향긋함과 은은함을 즐길 수 있는 차는 그 자체로도 즐길 수 있지만, 과일, 케이크, 초콜릿과도 궁합이 좋아 같이 곁들여 먹기가 좋다. 이 때문에 호텔업계에서는 프리미엄 티와 고급 디저트 메뉴를 곁들인 애프터눈 티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SECTION

2



미래&농업인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부진 각오로 한걸음씩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남의 농업인들이
곧 우리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요?

- | | |
|-----------|----------------------------|
| 24 전남명인 | 광양, 매실 홍쌍리 명인 |
| 26 팜&마케팅 | 보림제다 임광철 대표 |
| 30 청년이 온다 | 영암귀리부인 박정윤 대표 |
| 34 남도 여기! | 자연으로 원기충전! 영암 1박 2일 |

매실식품 대중화에 평생을 바치다

하얀 매화로 해마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청매실농원은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매실명가'가
자리한 곳이다. 매실식품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홍쌍리
명인은 평생을 매실에 바쳐온 국내
매실식품 역사의 산증인이다.

글 한희진 사진 청매실농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14호

홍쌍리 명인

홍쌍리 명인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65년 밤나무 1만 주, 매실나무 2,000주가 심어진 산비탈 농가에 시집와 지금의 청매실농원을 일구어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이며, 그 원산지는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1,500년 전에 들어와 우리의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 열매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실주를 수십 년 전부터 상품화해온 것 이외에는 2000년 대 이후에야 매실음료가 나오게 되었다. 매실을 이용한 전통매실 반찬은 홍쌍리 명인이 1994년 처음으로 상품화하였다.

홍쌍리 명인에게 매실농장을 물려준 것은 시아버지로, 명인은 청매실농원의 2대 농사꾼이었다. 명인은 농장을 넘겨받은 뒤 남다른 관찰력으로 매실의 우수한 가치를 확신했다. 수년간 투자와 끈기로 산을 개간하여, 매화나무, 밤나무를 구분하여 심어 오늘날의 농원을 조성한 것이다. 당시에는 매실을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명인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싸우며 매실의 효능을 발췌했다. 독보적 발상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식품들을 개발해냈고, 신념과 인내를 가지고 대중화에 성공했다. 명인이 정식으로 매실전통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은 1994년이고 1995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매실전통식품 지정을 받았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류는 매실농축액·매실장아찌·매실청(차)·매실잼·매실사탕·매실젤리 등이 있다.

명인의 청매실농원은 매실식품의 맛이 좋고, 약효가 좋고,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하기로도 유명하다. 명인은 ‘매실을 약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밥상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매실장아찌부터 매실고추장, 매실된장, 매실절임, 매실젤리, 매실초콜릿까지 30종이 넘는 매실식품을 개발했다. 그 이후 매실로는 최초로 ‘전통식품 지정’을 받았고 제조법 특허도 냈다.

청매실농원에서는 한결같이 전통제조법에 따라 매실식품을 만들고 있다. 청매실을 숙성·발효시키는 과정도 남다르다. 마당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개의 장독들, 숨 쉬는 그릇인 전통옹기로 구워낸 장독에 매실을 담아 수개월 동안 발효하는 전통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명인의 매실은 지역 경제도 일으켰다. 청매실농원은 연평균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08년에 이미 1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매실 농사는 매실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양을 중심으로 강 건너 하동과 구례까지 파급됐다. 특히 광양 지역은 3,300여 농가에서 연간 1만 1,000여 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1995년 명인이 처음 시작한 광양매화축제는 이제는 한 해 12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봄 축제로 성장했다. ∞

광양 청매실

업 체 명	광양청매실농원
대표자명	홍쌍리
주 소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14
T E L	061-772-4066
판 매 처	maesil.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홍쌍리 명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쌍리 명인의 성공 노하우

이름을 브랜드화하라

홍쌍리 청매실농원은 홍쌍리 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화에 성공한 대표사례로 평가받는다.

1대 매실지기로 직접 농사를 지은 시아버지의 대를 이어, 명인이 수년간 끈기로 산을 개간하며 매화나무와 밤나무를 심은 후 오늘날의 청매실농원을 조성한 뒤, 현재 다양한 매실 상품을 만들고 있다.

끊임없는 제품개발

청매실농원의 제품은 청매실농축액을 비롯해 청매실원, 청매실 고추장장아찌, 청매실절임 등 30여 종에 이른다. 매실의 씨를 발라내 농축하거나 장아찌 원료로 사용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한 9종의 특허와 농식품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매실과 6차산업을 결합하다

명인은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매년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광양 매화문화축제’를 시작한 것은 물론, <다모>와 <천년학>, <서편제>, <취하선>, <너는 내 운명> 등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면서 유명세를 더했다.





좋은 차를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림제다 임광철 대표

보성은 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로서 차산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보성 최초로 평지식 차밭을 조성해 25년 동안 녹차 외길을
걸어온 보림제다 임광철 대표는 ‘좋은 차를 널리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왔다.

글 백미희 동영상 홍승진 사진 이정도

기다림으로 차근차근 키워온 차밭

보림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지식 차밭이 조성된 것은 25년 전의 일이다.
‘녹차의 성지’인 보성에서는 꽤 젊은 편에 속한다. 이 차밭의 기원에는 임광
철 대표의 장인어른과 얹힌 사연이 있다. 그가 한국의 차 문화를 이끌었
던 ‘한국제다’의故 서양원 회장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보림(寶林)은 ‘차나무를 정성으로 키우고 보배 같은 차밭을 만들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회사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장인어른이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장인어른께서 보시고는 ‘차밭으로 일구
면 참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의 차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보림제다는 일
반적인 계단식과는 달리 평지식 차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성에서
는 최초였지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차는 면적이 넓은 것보다는 관리가 편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 차를 심은 것은 1995년이였다. 보림제다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
이 2005년이니, 꼬박 10년 동안 차밭을 일궈온 것이다. 그동안은 장인어른
이 설립한 한국제다에서 근무하며 차밭을 관리하는 방법과 제조·유통·마
케팅·디자인 등 실무지식을 쌓았다.

2004년에 일본의 자동화기계 라인을 도입해 공장을 설립하고, 2005년에 정
식으로 보림제다의 영업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 체험장과 교육장에 대한 준
비도 완료했다. 오픈 이후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기농 농업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다시 기나긴 여정을 거쳤다. 저농약 3년에 무농약 3년, 전환기 2년

▶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전남농업 유튜브 채널과 연결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 설치
- ② 앱 실행 후 사각형 테두리 안에 QR코드가
보이도록 위치
- ③ 인식된 결과 화면 이동





을 거쳐 현재는 전체 차밭을 유기농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인증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유기농 인증도 획득했다.

“사실 해외에서 ‘한국산 차’에 인식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재배한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유기농 인증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보림제다가 2008년부터 꾸준히 해외 전시회를 나갔는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고 나니 미국, 독일 등 해외회사에서 납품 문의가 오더군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녹차

보림제다의 녹차는 국내의 대표적인 녹차음료를 생산하는 동원F&B에 납품되고 있다. 8년 전에 맺은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림제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는 “프리미엄 녹차를 출시해 보고 싶다”는 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보성말차’, ‘보성홍차’, ‘보성꽃차’ 세 가지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보성말차는 국내 최초로 ‘콜드브루’ 방식으로 만들어진 녹차다. 녹차 꽃의 향을 채취한 꽃차와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외국산이 많은 홍차를 우리 원료를 활용해 출시한 것도 그에게는 뜻깊은 일이었다. 품질 좋은 차잎으로 만든 음료가 좋은 반응을 얻자 이제는 후속작 개발에 불이 붙었다. 올해에는 짙은층의 입맛을 겨냥한 말차라떼와 홍차라떼가 출시되었다. ‘좋은 차를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진 그는 자신의 차밭을 ‘차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가고 있다.

“보성의 이 골짜기에서 차밭을 일군 지 어느새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밭을 꽃밭처럼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림제

다의 차밭에 와서 차잎을 따고 차를 마시는 체험도 하고, 산책로를 거닐고 차를 마시면서 답소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차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ZOOM IN

높은 해발고도에서 재배하는 향긋한 녹차

보림제다의 차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장소에 있다. 분지성 기후 덕분에 기온이 낮아 차의 생산이 평균적인 녹차에 비해 조금 늦은 편이다. 기후가 다르다 보니 다른 차와 향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초콜릿 같은 달콤한 향이 난다’는 평이 많다고.

관리가 편한 평지식 차밭

대부분의 차 밭이 경사가 급한 비탈에 조성된 것과는 달리 보림제다의 차 밭은 보성 최초로 평지에 가까운 지형에 일군 평지식 다원이다. 덕분에 산지에 조성된 차밭보다 관리와 작업이 용이하다.

믿고 마시는 유기농 녹차

차는 그 과정이 까다로워 유기농 인증을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림제다는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 유기농으로 전환해, 국내인증과 네덜란드 인증을 획득했다.



선배농부의 TIP

차는 ‘인내의 열매’

차나무를 심어 차잎을 수확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차밭을 일구기 위해서 10여 년의 시간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냥 심어놓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차잎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노하우를 전수받을 멘토가 필요

저는 예전에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며 차나무를 키웠습니다. 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 라면 기존에 차밭을 일궈놓은 분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도할 것

보림제다의 녹차는 거의 전량이 동원F&B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상태였지만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해 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해 작년에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림제다

C E O	임광철
설립연월	2005년 4월
홈페이지	www.borimtea.com
T E L	061-852-4400
E-MAIL	piona1990@daum.net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귀리를 전합니다

영암귀리부인 박정윤 대표



6년 전, 태어나고 자란 고향 영암으로 내려와 귀리 농사를 시작한 영암귀리부인 박정운 대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2만 3,000여㎡ 단지의 귀리농사를 짓는 농부로 자리 잡은 그는 건강한 귀리를 두 손으로 키워내 더 많은 이들에 전하는 것에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글 백미희 사진 홍승진

고향 땅 영암에서 귀리를 ‘픽’하다

영암에서 귀리농사를 짓고, 귀리제품을 가공·판매하고 있는 영암귀리부인 박정운 대표. 농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농사가 ‘지긋지긋했다’고 회상했다.

“부모님은 전형적인 농사꾼이셨어요. 5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하우스, 과수원, 밭농사 등 안 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같이 농사일을 도왔어요. 새참으로 먹는 국수와 라면이 밥보다 익숙했고, 사시사철 쉴 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손에 남는 게 막대한 빚밖에 없더라고요.”

농사에는 손도 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그는 도시로 나가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비료회사에서도 근무하고 푸드트럭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남편이 지역 발령이 잦은 직업이에요. 아이들도 낳고 키워야 하니 같이 이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어딘가로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셨어요. 결국 고향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부모님과 같은 농부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다.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았다. 너무 많은 작물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작물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것이 ‘귀리’였다. 귀농을 결심한 후 2년 정도는 농사지를 작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귀리는 당노를 앓던 아버지를 위해 구매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귀리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귀리가 슈퍼푸드로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콜레스테롤, 심혈관 예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성장



기 아이들의 필수 아미노산도 함유되어 있어요. 숙변 제거나 노폐물 배출 효과도 있어서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뜨고 있어요.”

여성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는 현재 2만 3,000여㎡ 단지의 귀리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트랙터도 직접 운전한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스스로 냈다. ‘쌀귀리’, ‘볶은 귀리’, ‘귀리 간식’으로 콘셉트를 잡고 직접 제품을 개발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화 과정을 진행했다. 원물을 중간인을 거쳐 판매하는 것보다는 하나부터 끝까지 ‘내 손을 거쳐’ 가공해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영암이 귀리의 주산지가 아니라 강진과 진도 등을 오가며 작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셀 수 없이 겪었다.



“상품개발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귀리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그램 수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미 중량 표시를 한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볶고 나니 그램 수가 달라져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은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귀리 중 제 것보다 더 맛있는 제품을 보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비법을 여쭙보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두 아이를 키우느라 귀가시간만 되면 신데렐라처럼 뛰어들어오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와중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쏟고는 했어요.”

고소하고 건강한 귀리의 매력에 빠지다

현재 그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쌀귀리와 귀리분말, 귀리풍 세 가지다. 쌀귀리는 밥을 지을 때 섞어서 짓는 용도다.

현미 같은 식감 때문에 쌀귀리만 넣는 것보다 쌀



에 20% 정도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오독오독한’ 식감도 즐길 수 있다. 현미에 비해 불리지 않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귀리를 선택한 데에는 귀리 특유의 ‘고소한 맛’도 한몫했다. 고기를 먹을 때 귀리분말을 찍어 먹으면 콩가루처럼 느끼함을 잡아주고 고소하다.

“주변에 저희 제품을 먹어본 분들이 ‘마트에 가서 귀



리를 샀는데 왜 그건 다르냐, 혹은 맛이 없냐’고 자주 질문을 주세요. 보통 수입귀리나 겉귀리는 거칠고 맛이 없거든요. 흔히 귀리를 ‘맛없는 곡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쌀귀리’가 아닌 ‘겉귀리’를 드셔서 그래요. 판매 중인 귀리에 ‘쌀귀리’라는 표시 없이 ‘귀리’라고 쓰여 있으면 보통 겉귀리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볶은 귀리만 들어간 귀리분말과 간식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귀리풍도 판매하고 있다. 보통 우유에 타 먹는 용도로 200ml에 두 스푼 정도를 넣으면 아침대용으로도 거뜬하다고. 귀리분말은 현재 개인카페에 납품도 준비하고 있다. 귀리풍은 당뇨환자나 다이어트용, 아이들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리 빵튀기 과자다. 세 가지 제품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명절 선물세트도 판매 중인데 반응이 좋아, 현재 패키지를 간소화한 실속 세트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귀농한 지 6년, 박 대표 는 3,300㎡에서 시작한 귀리를 7배까지 키웠다.

그동안은 로컬푸드와 개인판매로만 판매되던 판로를 다변화해 7월 중순부터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오픈할 예정이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영암귀리부인의 5년 뒤 목표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농장’을 만드는 것이다. 귀리분말로 빵과 음료수를 만들고 영암의 자연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짓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식재료나 음식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밭로 뛰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믿고 응원해주는 덕분에 항상 힘이 나요. 이제 앞만 보고 아이와 귀리 모두 쑥쑥 키워내려고요.”

자연으로 원기충전!

영암 1박 2일

1
DAY

첫째날, 남도의 빼어난 경관을 누비다

영암여행을 왔다면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산이 많은 곳, 월출산국립공원을 꼭 방문해야 한다. 월출산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빼어난 경관으로 남도의 작은 금강산으로 불린다. 천황봉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수석의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월출산 둘레길인 기찬뗏길을 추천한다.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기찬뗏길은 월출산의 물, 숲, 바위, 길을 체험하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



월출산

서 월출산의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보 전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건강도로이다. 여름에 월출산을 찾았다면 영암의 대표 피서지인 기찬랜드를 들를 것을 추천한다. 기찬랜드는 천연 자연풀장이 조성되어 수많은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기찬랜드에 공급하는 수원은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사방댐에 담수하여 천연수만을 사용하므로 최고의 수질은 물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건강

09:00

월출산

문의 061-473-5210
홈페이지 www.knps.or.kr
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43

11:30

기찬랜드

문의 061-471-8500
관람시간 09:00~19:00
이용요금 어른 6,000원/군인·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
주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94

14:00

맛집 추천!

매력한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7
기찬랜드 명품관 소고기, 한우육회, 불백한상 등
월출산산장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96-10
돼지직화구이, 버섯우렁강된장 등



요즘 들어 일상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자연에서 힘을 얻어보자.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머물며 기운을 충전하고 싶다면 영암을 추천한다.
영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출산에 올라 트래킹과 물놀이를 즐기고,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낙지를 즐겨보자.
이외에도 전통 한옥, 농경문화 등 선인들의 삶을 모습까지 알아볼 수 있는 1박 2일 코스를 소개한다.

글 권지혜 사진 영암군청



기찬랜드



구림한옥체험관

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일 물놀이를 즐길 거라면 기찬랜드 내에서는 취식이 가능하고 소고기를 사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구워 먹을 수 있는 식육식당도 있다. 월출산 근처의 맛집으로는 월출산산장을 추천한다. 불맛을 내어 깊은 맛을 더한 돼지 직화구이와 버섯우렁강된장, 각종 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입안 가득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

첫째날의 마지막 일정은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오랜 전통

을 지닌 구림전통마을의 구림한옥체험관을 둘러보자. 이곳은 동구림과 서구림을 잇는 구림사거리에 우리나라의 주거문화 변천사를 단장해 놓았다. 동굴집과 움집에서 삼국시대의 토담집, 조선시대의 초가집에 이르기까지 영암지방의 주거문화 변천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6:00

구림한옥체험관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76



2
DAY

왕인박사유적지

둘째날, 영암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하다

둘째날 일정은 영암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시작해보자. 이곳은 백제시대 일본에 유학을 전파한 왕인박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왕인박사는 일본 응신왕의 초청을 받아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학문을 인정받은 그는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이 일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왕인박사의 고향으로 알려진 영암에 그의 자취를 복원해 놓게 되었다.



왕인박사마을

남도관광의 명소인 이곳 왕인박사마을에는 왕인촌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100여 채의 한옥 민박집마다 독특한 개별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월출산국립공원과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왕인촌 주민자치회가 네트워크화되어 전통 및 향토 문화 웰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떡메치기, 전통혼례체험, 예절체험, 한옥민박체험 등이 왕인박사마을의 대표

10:00

왕인박사 유적지

문의 061-470-6643
홈페이지 www.yeongam.go.kr/home/historicalsite
주소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11:00

왕인박사마을

문의 061-472-0151
홈페이지 www.왕인박사마을.com
프로그램 떡메치기, 전통혼례체험, 예절체험, 한옥민박체험 등
주소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43-14



13:00

맛집 추천!

독천식당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64
갈낙탕, 낙지초무침 호롱이, 낙지볶음
제일식당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62-1
갈낙탕, 낙지초무침 호롱이, 낙지볶음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

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목포와 가까운 영암은 갯벌에서 잡은 낙지가 유명하다. 낙지거리가 있을 정도로 갈낙탕, 연포탕, 낙지볶음 등이 유명하다. 독천 낙지음식 명소거리는 호롱 낙지와 갈낙탕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의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이다. 2019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독천 5일 시장을 중심으로 15여 개의 낙지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마지막 일정은 전통농경문화 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여 우

리 삶의 옛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농업박물관을 추천한다. 1993년 개관한 이곳은 부지만 3만㎡ 규모를 자랑한다. 박물관 전시실은 크게 본관, 농업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꾸며졌으며 여러 전통 농기구와 함께 농경문화의 발전, 사계절 농사정경, 현대농업 그리고 옛 농촌의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14:30

농업박물관

문의	061-462-2796
홈페이지	www.jam.go.kr/web?site_id=19
관람시간	09:00~18:00(매표시간 09:00~17:30)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산업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삶의 터전인 전남에서 더욱 밝게 빛을 내도록 앞선 생각,
더 나은 기술로 농부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도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 | | | |
|----|------------|-----------------------------|
| 40 | 농기원 기고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
| 42 | 귀농정보 | 고흥군·완도군 귀농귀촌 정책 |
| 44 | 농업인 건강정보 |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 상지 근골격계 질환 조심! |
| 46 | 농기술정보 1 | 경관작물, 심고 싶은데 언제 씨를 뿌리지? |
| 48 | 농기술정보 2 | 초여름 과수 공통 병해충 주의하세요! |
| 50 | 교육프로그램 | 8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
| 52 | JARES NEWS | |
| 58 | 남도축제 | |

33년 농촌지도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1987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5월 전남 목포시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사로 신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전라남도농촌진흥원(1990. 1.)과 농촌진흥청에 전입(1996. 7.)하였고, 2007년 1월 농촌지도관에 임관되었다. 이후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2011.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2015. 10.),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2017. 1.) 등을 역임하였고, 2017년 7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부임하여 3년 동안 재직하는 등 농촌지도사업 임무를 수행해 왔다. 33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았는데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그동안 농촌진흥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농촌진흥청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비닐하우스 자동화·

표준화 기술보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채소를 사시사철 공급할 수 있게 한 백색혁명 달성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최근 ICT를 활용한 시설원에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400억 원 중 700억 원을 확보하여 농업분야에 지열 냉·난방 기술을 처음 도입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탐프루트 프로젝트’와 과채류 생산을 위한 ‘탐과채 프로젝트’를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과실·과채류 품질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외에도 마늘 주아 재배기술을 최초로 도입하여 정착시켰고, 수경 재배기술 보급, 딸기 하이베드 시범 도입으로 악성노동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였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초로 노지 스마트 팜 기술 도입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첨단 무인자동화 사업을 발굴, 블루이코노미에 반영되었다.

또한, 청년농업인 정착모델 육성을 위해 118억 원 규모의 청년 창농타운 조성사업을 확보하였고, 전국 최초로 청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설치 운영, 청년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는 벼 드문모심기 및 신품종 ‘새청무’ 보급, 단동형하우스 스마트팜 시범, 신품종 ‘단영’ 마늘 종구를 증식·보급하였다. 신소득 지역 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바나나·애플망고 등 ‘신소득 아열대 작목 단지’ 조성,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보급사업 추진, 12개 시군센터에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가공시설을 확보하였다.

그렇지만 농업·농촌의 여건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상도 증가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농촌지도 공직자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신규 에코세대로의 교체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어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농업분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ICT를 활용한 첨단과학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농촌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니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고 역량 있는 후배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다. ☺

귀농,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세요!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 교육 운영

지원대상	고흥군으로 전입 온 귀농귀촌인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사업기간	1월 ~ 12월
교육인원	490명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정 잠정연기
지원내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귀향 청년 U-turn(플러스)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만 19~49세 고향 출신 귀향 청년, 부모 또는 본인 등록기준지가 '고흥군'인 자 / 고향 전입 직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전입일 기준) / 고향 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자(2019. 1. 1. 이후 전입자에 한함)
사업량	40명(세대주 기준 지원)
사업비	5억 원(군비 100%) / 청년 100만 원, 청년부부(플러스) 150만 원 *자부담 매칭 10% 이상 의무
지원내용	창업비 지원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창업교육수강, 컨설팅 의뢰,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 농어업 기반구입 지원 농기계 구입, 시설 개보수, R&D, 수출입 컨설팅,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 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사업기간	1월 ~ 12월
사업량	46명 / 79억 원(상반기)
사업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및 신축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금융자금 100%(이자보전사업) 2% 대출금리, 사업 당해연도 12월 31일,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귀촌 영농정착도우미 육성 및 운영

지원대상	관내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 신규 농업인
사업기간	2월 ~ 11월
사업비	2,400만 원(군비 100%)
지원내용	품목별 재배기술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빈집 및 농지정보, 관내 지리정보 제공, 지역민과 융화방법 및 농촌생활방식 안내

귀향 청년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농가주택 매매 혹은 5년 이상 임대한 자 / 만 19세 ~ 49세(신청일 기준), 고향 출신 귀향 청년, 부모 또는 본인 등록기준지가 '고흥군'인 자, 고향 전입 직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전입일 기준)
사업기간	1월 ~ 12월
사업량	20명(세대주 기준 지원)
사업비	2억 원(군비 100%) / 1,000만 원(자부담 매칭 10% 이상 의무)
지원내용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운영

지원대상	선도농가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귀농연수생 귀농을 목적으로 고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사업기간	4월 ~ 10월
사업량	5팀(선도농가 5, 귀농연수생 5)
사업비	3,000만 원(국비 15, 도비 3, 군비 12) / 선도농가 200만 원(40만 원×5개월), 귀농연수생 400만 원(80만 원×5개월)
지원내용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1:1 매칭 현장 실습교육, 귀농인 연수작목별 현장 실습 단력운영(7개월 중 5개월 운영), 자가영농 현장실습 월 80시간 진행

귀농귀촌 농업배움터 운영

지원대상	선도농가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귀농 연수생 귀농을 목적으로 고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사업기간	4월 ~ 10월
사업량	4팀(선도농가 4, 귀농연수생 40)
사업비	1,600만 원(국비 8, 도비 1.6, 군비 6.4)
지원내용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1:10 매칭 현장 실습교육, 작목별 현장 교육 (재배기술 및 과정, 유통 등), 기간 중 교육 10회(회당 4시간) 추진 * 귀농 교육시간 40시간 인정

청년 유턴 고향사랑(愛) 사관학교 운영

지원대상	고흥군 거주자 및 희망자 중 만19~49세 이하 청년
사업기간	8월, 12월(연 2회)
사업량	80명
사업비	3,000만 원
교육내용	1주차 청년 고향 정착을 위한 문화 극복 지역 알아보기, 2주차 현대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창업 교육 과정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지원대상	고흥군 거주자 및 희망자 중 만19~49세 이하 청년
사업기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연 2회)
사업량	80명
사업비	4,000만 원
교육내용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성공사례,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마인드 교육, 6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토론, 청년 창업 마인드 함양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귀농인의 삶, 가고 싶은 섬 완도에서 시작해요!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가족과 함께 관내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50시간 이수 ※ 관내 이주 6개월 후 신청 가능
사 업 량	18가구
사 업 비	9,000만원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 및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등으로 세대당 500만 원 지원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가족과 함께 관내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50시간 이수 ※ 관내이주 6개월 후 신청 가능
사 업 량	3가구
사 업 비	1,500만원
지원내용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용도로 세대당 500만 원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3억 원 한도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500만 원 한도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5년 이내 신규 귀농인 / 농촌진흥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
사 업 량	1농가
사 업 비	1,250만 원
지원내용	사업모델 혁신, 창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예비창업실행 비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중·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방역필 또는 방역면제자로 관내 거주자
지 원 금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교육기간	2월 ~ 12월
교육규모	50명 내외 / 10회 이상
교육내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융화교육 및 영농교육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교육기간	3월 ~ 11월
교육규모	120만 원 / 월(귀농인 80만 원, 선도농가 40만 원)
교육대상	완도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 농업인(귀농인)
교육내용	선도농가 농장에서 귀농인에게 이론 및 실습을 융합한 현장실습교육

귀농인의 집 운영

운영규모	1개소(완도군 고금면 청학동길 196)
임대조건	월 15만 원 / 2개월 이내
지원내용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문의처

종합안내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550-5711)
귀농교육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550-5971)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 **상지 근골격계 질환** 조심!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많은 농업인들이 손·손목(79.4%), 목(47.7%), 어깨(32.8%) 순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2016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 농촌진흥청 또한 농업활동으로 인한 심한 통증 및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는 어깨(8.0%)이고, 다음으로 손·손목(3.7%), 목(3.1%)과 팔꿈치(2.0%)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 시 상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노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상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및 예방법

근막통증후군 흔히 목·어깨·팔 등에 발생하는데 주로 “어깨에 담이 걸렸다”, “근육이 뭉쳤다”라고 말하는 병이다. 갑작스럽게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

면서 근막(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통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근육에 무리를 주는 작업은 피해야 한다. 심한 경우 물리·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회전근개파열 어깨 관절을 감싸면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힘줄이 과도한 작업 등으로 손상되면서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거나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평소에 일을 몰아서 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물리·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

내·외상과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가지치기 작업, 망치질 등 손목을 젓히거나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하면서 팔꿈치 안



농업인들은 어깨가 빠질 듯 아프고 팔이 저리지만 무슨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지(上肢, 팔) 근골격계 질환은 표준화되지 않은 농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부적절한 자세, 장시간 노동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농촌진흥청

팔꿈치로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걸레·행주 짜기, 가위질, 칼질,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을 한다. 심한 경우 약물·물리치료, 주사 요법 및 수술이 필요하다.

수근관증후군/손골관절염 수근관증후군은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손목의 힘줄이 두꺼워지면서 손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 신경이 눌리면서 손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 통증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손골관절염은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할 손가락 관절들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발생하고 손가락 마디가 튀어나오기도 하는 질환이다. 일을 몰아서 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약물·물리치료, 주사 요법 및 수술 진행이 필요하다. ☞

불편한 농작업 자세 및 부담 부위

- ① 팔을 위로 올린 자세
목과 어깨 부담 - 목 통증 및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 질환 유발
- ② 반복된 가위질
손목과 손의 부담 - 수근관증후군 및 내외상과염, 손골관절염 등 유발
- ③ 불안정한 사다리 이용
추락의 위험 -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
- ④ 위로 팔을 올리거나 아래로 숙여 보는 자세
목과 어깨, 허리의 부담 - 목 통증, 요통 등 유발
- ⑤ 수확용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있는 자세
한쪽 어깨의 부담 과중 - 근막통증후군 유발
- ⑥ 수확 바구니 운반
어깨, 팔, 허리의 부담 - 근막통증후군, 내외상과염, 허리디스크 등 유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농업인 건강 체조

손목통증예방



어깨통증 예방



경관작물, 심고 싶은데 언제 씨를 뿌리지?

경관작물은 농경지에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는 작물이다. 경관작물은 농경지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경작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경관작물의 역할을 하고 경관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토양에 환원되어 꽃거름작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경관작물로는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크림손클로버, 수레국화, 양귀비, 클로탈라리아, 자운영 등이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경관작물로 이용 가능한 작물은 약 50여 종이 있는데 이 작물들은 씨뿌리는 시기에 따라 봄파종, 여름파종, 가을파종작물로 나눌 수 있다.

봄 파종 작물

작물의 월동력이 약하므로 3~4월에 씨를 뿌려 이른 봄 덥지 않은 날씨에 생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봄 파종 경관작물로는 메밀, 황화초, 크림손클로버,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 등 26종이 있다. 봄에 파종을 한 경

경관작물 종류 및 씨 뿌리는 시기



봄 파종 작물
(유채)



여름 파종 작물
(메밀)



가을 파종 작물
(헤어리베치)

관작물은 4~6월에 꽃을 피운다. 그 이후 토양에 환원하고 심기차례로 들깨, 조, 수수, 기장 등의 식량작물을 심을 수 있다.

여름 파종 작물

주로 5~6월에 씨를 뿌리면 7~10월에 꽃이 핀다. 여름 파종의 대표작물로는 클로탈라리아, 메밀, 공심채, 아마란스 등 23종이 있다. 여름경관작물이 끝난 이후에 노지에서는 겨울작물인 맥류(보리, 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등), 양파, 마늘, 김장배추, 가을감자 등과 심기차례를 할 수 있다. 시설재배지에서는 봄 수확이 끝나고 가을재배를 시작하기 전인 6~8월 하우스 휴지기간에 여름 파종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꽃거름 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

구 분	봄파종(26)	여름파종(23)	가을파종(14)
경관작물	양귀비류(꽃양귀비, 금영화), 달맞이꽃, 라벤더, 클로버류(화이트, 레드, 페르시아, 크림손클로버), 메밀, 목화, 베베나, 헤어리베치, 안개초, 알팔파, 연꽃, 유채, 자운영, 작약, 파셀리아, 하고초, 헤어리베치, 황화초	가우라, 감국, 공심채, 구절초, 목화, 벌노랑이, 범부채, 부처꽃, 산국, 세스바니아, 아마란스, 안개꽃, 연꽃, 천일홍, 코스모스, 클로탈라리아, 페이시안클로버, 하고초, 해바라기, 화이트클로버	감국, 꽃양귀비, 레드클로버, 산국, 수레국화, 알팔파, 유채, 자운영, 클로버류(크림손, 화이트클로버)
준경관작물	귀리, 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기장, 수수, 조	밀, 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가을
파종
작물

9~11월에 씨를 뿌린다. 가을에 난 싹은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해 봄인 2월 말에 다시 생육을 시작하여 4~5월에 꽃이 핀다. 대표적인 가을 파종 경관작물로는 보리, 헤어리베치, 수레국화 등 14종이 있다. 가을파종 경관작물을 토양으로 환원한 이후에는 콩, 사료용 옥수수, 벼, 참깨 등을 재배할 수 있다.

경관작물 1년에 여러 번 파종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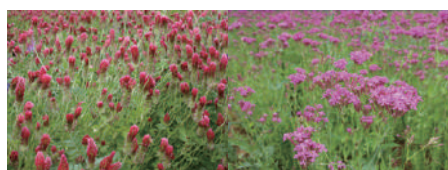
작물 중에는 생육기간이 짧거나 싹트는 조건에 따라 씨뿌리는 기간이 여러 번 가능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재배가 가능하고, 수레국화는 추운 날씨에 견디는 힘이 좋고 초기생육이 빨라 가을과 봄에 모두 씨를 뿌려도 된다.

씨뿌리기가 여러 번 가능한 작물들은 씨뿌리는 시기를 달리하면 원하는 시기에 꽃을 볼 수 있다. 가을과 봄에 파종 가능한 작물로는 헤어리베치, 보리, 수레국화, 크림손클로버 등 14작목이 있고, 봄과 여름에 파종이 가능한 작물로는 메밀, 연꽃, 목화 등 4작목이 있다. 이렇게 두 시기에 걸쳐 씨뿌림이 가능한 작물의 가장 좋은 ‘씨뿌림’ 시기는 앞 시기에 씨뿌리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가을·봄 파종 작물은 가을에 씨뿌리기를 추천한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작물의 영양생장기가 길기 때문에 생체량도 충분하고 개화 시기도 빠를 뿐만 아니라 꽃대가 길어 봄에 파종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제때 씨뿌리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늦게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봄에 씨뿌림을 권장한다. ☞

가을·봄파종(14종)	봄·여름파종(4종)
꽃양귀비, 헤어리베치, 수레국화, 밀, 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유채,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살갈퀴, 알팔파	메밀, 연꽃, 목화, 페르시아클로버

봄파종 경관작물



크림손클로버

끈끈이대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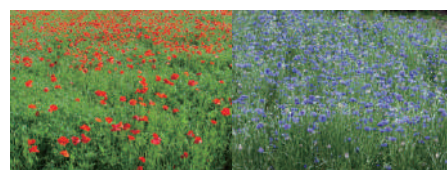
여름파종 경관작물



클로탈라리아

가우라

가을파종 경관작물



꽃양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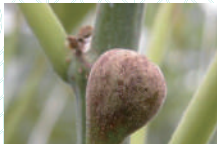
수레국화

초여름 과수 공통 병해충 주의하세요!

	피해와 진단	형 태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목 큰날개매미충과 <i>Pochazia shantungensis</i>    알 3령 어린벌레 어른벌레	• 어린가지 속 산란에 의한 고사,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 광합성 방해 및 상품성 하락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식물체로부터 양분 흡즙으로 생육저해, 심할 경우 낙엽 또는 낙과 유발	• 알 : 유백색 장타원형, 길이 1.24mm, 1년생 가지 속에 산란 • 어린벌레 : 유백색 또는 노랑색, 항문 주변에 흰색의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펼치고 있음 • 어른벌레 : 흑갈색, 암컷은 콩무늬에 줄기를 팔 수 있는 1쌍의 톱니모양 갈고리를 접고 있음
녹응애 응애강 흑응애과 <i>Aculops sp.</i>  어른벌레	• 피해증상 :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 필요 • 골드키위 : 과일 표면에 작은 흑점, 전체적으로 흑변 • 자생다래 : 과일 표면 갈변, 잎 뒷면 흑변 및 위로 말림 • 무화과 : 주로 새순에 발생, 새순이 갈변되고 심하면 고사	• 토마토 녹응애와 유사하나 다른 종임 • 크기는 0.1~0.2mm 내외, 유백색의 싹기모양, 육안관찰 곤란 • 정확한 종 동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선녀벌레 매미목 선녀벌레과 <i>Metcalfa pruinosa</i>   어린벌레 어른벌레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신초에서 양분을 흡즙, 심하면 낙엽 • 흰색의 밀납 물질이 바람에 날리며 조경수의 외관 손상 • 배설물 분비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광합성 저해, 상품성 하락	• 알 : 크기 1mm, 방추형이며 유백색 • 어린벌레 : 8mm, 연녹색이지만 백색 밀납 물질로 덮여 있음 • 어른벌레 : 10mm, 앞날개는 연한 흑색으로 부정형의 검정색 반점이 있으며, 항상 날개를 접고 있음

더위가 서서히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이 시작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병해충으로부터 과수를 지켜야 할 때이다.
과수 공통으로 생길 수 있는 병해충에 적절한 방제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줄여보자.

출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생생태	방 제	피해사례
2010년 국내 처음 발생, 전국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됨 - 연 1세대 발생, 목본류의 1년생 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 - 생활사: 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 → 5월 상순에 알에서 깨어남(4회 탈피) → 7월 상순 어른벌레, 과수원과 산림에서 섭식 → 목본류 1년생 가지 속에 산란(8월 상순), 25~30개/알덩어리 → 11월 중순 어른벌레 죽음 - 기주식물: 총 51종 이상. 가죽나무, 때죽나무, 산수유 등 선호	- 알: 산란가지 제거, 기계유유제 10배액 3월 상순 살포(친환경) 클로르피리포스수화제 500배액 3월 상순 살포(일반) ※ 이른 봄 개화하는 산수유, 복숭아, 매실은 기계유제 10배 살포시 약해가 발생 - 어린벌레: 5월 하순 - 어른벌레: 8월 상순부터 주기적 방제 - 기주범위가 넓고 주 서식처가 산림이기 때문에 방제 시 인근 산림을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	 산란가지 고사  어린벌레 흡즙
- 골드키위: 잎 뒷면, 과일에 기생, 착과 이후 6~10월까지 발생 - 자생다래: 6월부터 발생 시작, 7월 상순에 피해 확인됨 - 무화과: 주로 시설재배에서 발생, 5~6월에 발생 많음	- 녹응애는 초기진단이 중요, 10일 간격 지속적 관찰 필요 - 일반적으로 농약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방제 - 골드키위, 자생다래: 6월 중하순에 방제 적기, 뽕나무각지벌레와 동시 방제 - 무화과: 새순 위주로 수시 진단 필요, 발생 시 적용약제 살포	 골드키위 피해과
- 연 1세대 발생, 알로 월동하여 5월 상·중순경에 부화 - 부드러운 잎이나 새 가지에서 양분 흡즙 - 어린벌레는 백색 밀납 물질을 분비하여 가지나 잎에 남기므로 발생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어린벌레는 7~8월경 어른벌레가 됨 - 암컷 어른벌레는 9월에 가지의 겹질 속이나 표피에 산란 - 기주식물: 아카시아, 감나무, 밤나무, 배나무, 인삼 등	- 월동 알의 부화가 완료되는 6월 상순경에 적용 약제 살포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과수원으로 유입되는 초기에 약제 살포	 자생다래 과일 피해  무화과 과일 피해
		 어린벌레 분비 밀납물질  어른벌레 집단서식
		 피해 과일(배)  낙엽 피해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일정

8월
교육일정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청년농업인 창업기초교육			
2	3	4	5	6	7	8
					제2기 농업기계 안전교육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제1기 농업기계 전문반(트랙터 등)		
23	24	25	26	27	28	29
		승계형 귀농				
				드론 실무방제기반		
30	31					

청년농업인 창업기초교육

교육대상	도내 청년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교육기간	7. 1.~ 8. 31.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조보람(061-330-2724)

제2기 농업기계 안전교육반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8. 7.~ 8. 7.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제1기 농업기계 전문반(트랙터 등)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8. 20.~ 8. 21.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 친환경 유기농업 방향 - 트랙터, 밭농업기계, 시뮬레이터 및 농작업기 점검정비 및 운전조작 현장교육 등

승계형 귀농

교육대상	도내 5년이하의 귀농·귀촌자
교육기간	8. 25.~ 8. 27.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성국(061-330-2736)

드론 실무방제기반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8. 27.~ 8. 28.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최첨단 드론방제기를 이용한 영농현장 방제 및 안전한 비행운영과 삼각비행, 원주비행, 직진비행 등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 자세한 교육일정은 홈페이지(www.jares.go.kr)를 참고하세요.

교육신청 교육시작 한 달 전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신청

교육문의 전문기술 061-330-2745, 귀농귀촌정보화 061-330-2736, 농업기계 061-330-2732

JARES NEWS



전남도, '유자차' 중국 월마트에 본격 수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도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고흥 소재 한성푸드에서 '유자차 중국 월마트 수출 상차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송귀근 고흥군수, 박진권 도의원, 송우섭 고흥군의회위원장, 임성재 NH농협 고흥군지부장, 이재후 전국유자생산자연협회장, 신선식 두원농협장, 정영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전라남도는 매월 유자 가공제품 60여 톤을 중국 월마트에 공급,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등에 전라남도 상설판매장 9개소와 해외 소포물인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출품목 발굴 및 입점을 지원하며, 지역특화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자, 가공업체, 수출단지 조성 등 부가가치를 증대할 다양한제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자원경영과 김덕현 연구관(061-330-2591)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녹차산업 발전계획 수립 착수

전남농업기술원은 미국, 중국 등 세계 차(茶)시장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남도 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녹차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녹차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명 커피 전문업체인 스타벅스에서 녹차 메뉴가 등장하는 등 소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녹차의 안전성 파동 이후 소비자 외면으로 녹차산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녹차의 음료 기능뿐만 아니라 가공제품, 식품소재 원료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용역은 전남 보성, 경남 하동, 제주도 등 3개 녹차 주산지의 차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국내 차산업 시장현황과 가공제품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 등 전남 녹차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차산업연구소 정미진 연구사(061-850-2707)

전남농업기술원, (주)땅끝무화과와 유색무화과 산업 발전 '맞손'

전남농업기술원은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주)땅끝무화과와 유색무화과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색무화과 시범재배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땅끝무화과는 무화과 유망품종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득화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색무화과는 일반 무화과에 비해 당도가 1~2브릭스 정도 높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 현장에서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30여 종의 유색무화과 품종을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특성을 분석해 왔으며,



지난 1994년부터 도내 무화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상자재배,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 전용양액에 관한 특허 등을 확립한 바 있다. 한편, (주)땅끝무화과는 2012년에 설립하여 해남군 송지면의 간척지에 시설하우스를 짓고 수익성이 높은 무화과로 작목전환을 한 혁신적인 농업법인이며, 현재 30여 명이 17ha면적에서 친환경 시설무화과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공동선별 출하를 시행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해남 땅끝 무화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생산품을 직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의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061-880-8020)



**전남농업기술원,
고흥 유자산업 발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 신제품 연구와 수출확대를 위해 고흥 소재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수출 유자 품질 균일화를 위한 우량 품종 선발 보급 및 유자 우량 변이체 수집과 특성평가 연구와 시범재배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 우수 품종 시범재배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을 통해 수출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원은 유자 동해피해 경감기술, 가공 전용 씨 없는 품종 '다전금'을 선발하여 에덴식품에 보급해오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자젤리, 올리고당, 유자크런치 등을 개발했다. 특히 유자차 갈변방지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전라남도 지난해 유자 수출액은 1,900만 달러에 이르며,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탁월한 면역력 증진 효과를 내세워 베트남, 미국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문의 과수연구소 조혜성 연구사(061-880-0812)



**전남농업기술원,
화순군과 토종다래 특화사업 육성 본격화**

전남농업기술원은 화순군과 토종다래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화순군의 '1읍면 1특새 소득작목 육성' 사업과 연계해 지역 토종다래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화순군농업기술센터와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제품 시범 보급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센터는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생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토종다래는 과일 무게가 10~15g으로 일반 키위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17브릭스 정도로 높아 맛있고, 껍질이 얇고 털이 없어 한입에 먹기 편하고 항산화능과 항치매(AchE, BchE) 생리활성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1994년부터 다래 소득화를 위한 품종개발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치약 등 4개 품종을 개발했고 재배매뉴얼을 발간하여 농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문의 과수연구소 조혜성 연구사(061-880-0812)

전남농업기술원, 지역 농산물 62종 영양성분 DB 구축

전남농업기술원은 2년에 걸쳐 전남의 주요 농·특산자원 62종에 대해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면역력 강화와 향균에 좋은 농산물을 선별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치유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치유 효능의 기능성을 갖는 소재 및 가공제품을 개발하고자 전남의 재배면적 1위 작목 7종, 지리적표시제 작목 27종, 지역특화 작목 28종의 향산화·항노화, 면역력 강화, 향균, 피로회복, 항치매, 항고혈압, 항당뇨의 치유특성별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면역력 강화, 향균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아연, 셀레늄의 무기질 함량이 높은 전남 농



산물 소재를 선별한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아연의 효능은 면역반응에 가장 깊이 관여하며 T-세포와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셀레늄은 강한 항산화성을 나타내며 항체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백신 기능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 농산물 중 참깨(유미 품종)는 재배면적 1위 작목, 동

부(옥당 품종)는 영광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아연 함량이 높아 하루 권장 섭취량(8.5 mg/100 g)의 70%, 47%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비파잎(진왕 품종)은 완도의 지역특화작목, 검정쌀(진도흑메)는 지리적표시제 작목으로 셀레늄 함량이 높아 하루 권장 섭취량(55 µg/100 g)의 104%, 24%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선경 연구사(061-330-2514)

JARES NEWS



전남농업기술원, 반려견 신토불이 기능성사료 2종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지역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사료 2종을 개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비파잎을 이용해 반려견의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해 실험동물에 1일 kg 당 150mg을 급여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참다래를 이용해 반려견의 알레르기 예방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참다래를 실험동물에 0.2% 급여한 결과 피부발진 완화 및 털 재생 촉진 기능을 밝혔다. 이번에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반려견 프리미엄 기능성 사료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슬레, 마스, 로얄캐닌 등 글로벌기업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려견의 비만과 피부질환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연말까지 개발된 2종의 반려견 기능성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과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해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축산연구소 박만호 연구사(061-430-4232)



전남농업기술원-고흥석류친환경법인 맞손, 석류 명품화 추진

전남농업기술원은 고흥의 지역특화작목인 석류 공동연구 및 산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신제품을 조기에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석류법인에서는 신제품 고품질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득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석류 품종 판별 기술 개발, 친환경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관수 관리 방법, 석류 과피의 갈변 현상 등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지난 10년간 국내 유일하게 석류 신제품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단미홍' '신미홍' 2개 신제품을 개발하여 석류 법인 등을 통해 시범재배를 추진해왔다. 한편, 고흥석류친환경법인은 고흥군의 260여 호의 석류 생산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단체로 연간 생산량이 150톤에 이른다.

문의 과수연구소 조윤섭 연구관(061-880-0811)

전남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유자 수출 확대 본격화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지역특화작목인 유자 수출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유자의 안정적인 재배기술 개발, 생산단지 조성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자 생산량은 2019년 10,100톤으로 전국 82%, 재배면적은 804ha로 전국 83%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수출물량은 3,758톤으로 2019년 대비 16.5%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유자에 함유된 비타민 C가 레몬에 비해 3~4배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자는 생과로 수출되기 보다는 대부분 유자청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는 유자소주, 마스크팩, 유자퓨레, 스무디 등 다양한 유자제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액상스틱 유자음료, 폐기되는 유자박에서 펙틴을 추출한 가공식품, 향수 및 미스트 향장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과 공동으로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컨설팅,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마케팅 교육과 해외온·오프라인 매장의 입점 및 판촉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자원경영과 조용관 연구사(061-330-2593)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유기농 인증면적 크게 늘려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의 대표 노지채소인 양파 유기농 인증면적이 최근 3년 사이 6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유기재배 기술 개발에 힘쓴 결과이며, 전국 면적의 29%인 49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양파 유기재배는 정식과 수확 등 농작업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노균병 등 연작에 의한 피해가 커 재배면적이 크게 늘지 못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논을 이용한 유기농 벼와 양파를 이모작함으로써 노균병 등 연작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힘든 농작업을 기계화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함평군 해보면 양파 유기재배 작목반과 함께 8ha 면적에서 기계화기술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파 유기재배 매뉴얼’ 책자 보급 등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에 힘쓴 결과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원예연구소 신길호 연구사(061-330-2543)



전남농업기술원, 새로운 분화 장미 생산기술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국내 화훼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분화 장미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분화 장미는 ‘트리로즈(tree rose)’로도 불리며, 1~1.5m 높이의 외줄기 찔레 대목 윗부분에 장미 눈(芽) 여러 개를 접목하여 풍성한 나무 모양의 장미 덩굴을 만들어놓은 형태이다. ‘트리로즈’는 18세기 후반부터 영국 귀족의 정원용으로 심었는데, 정원 장미 수형과는 형태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꽃을 동시에 피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생산기술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주당 10~15만 원의 비싼 가격에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로열티 절감을 위해 ‘트리로즈’ 생산을 위한 대목 선발과 육묘, 정식, 접목 시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할 경우 소비자는 수입산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재배농가는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원예연구소 박민영 연구사(061-330-2548)

전남농업기술원, 축산냄새 저감대책 등 5개년 계획수립 추진

전남농업기술원은 축산냄새 저감 및 한우산업 재도약을 위한 연구과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축산냄새가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기업화, 인근의 급격한 도시화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한우산업은 청정전남의 이미지를 반영한 선제적 연구로 제2의 도약을 열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은 축산냄새 저감과 한우산업성장 2개 전략에 총 29개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축산냄새 저감 연구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된 기술 실행화 및 고도화 4과제, 현장에서 시급한 최우선 연구 5과제, 축산냄새저감 신기술 개발 4과제, 국립축산과학원 및 대학과 최첨단 냄새저감 기술 연



구 3과제 등 18과제다. 아울러 한우산업성장 연구과제는 전국 제일의 한우산업을 위한 개량과제 4과제, 미래대비 전남한우 개량 고도화 기술 개발 3과제, 새로운 천년을 위한 한우 사양기술 개발 2과제, 도민-축산농가 상생연구 3과제 등 11과제의 내용을 담았다.

투자 사업비는 2개 전략 29개 연구과제에 787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축산냄새저감 연구에 614억 원, 한우산업성장 173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401억 원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축산연구소 구민정 연구사(061-430-4261)

전남도 소식

전남도, '청년 창업농' 선발...미래농업 버팀목

- 268명 선발...영농정착금 월 최대 100만 원, 후계농 자금 3억 원 용자 -

전라남도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 268명을 선발,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 후계농 자금 등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청년 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원자는 총 466명으로 1.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코로나 19'로 도 단위 면접이 불가능해 시군별 평가를 실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자는 남자 218명(81.3%), 여자 50명(18.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00명(37.3%), 30대 168명(62.7%)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예정자 157명(58.6%), 1년차 93명(34.7%), 2년차 14명(5.2%), 3년차 4명(1.5%)이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의 청년농업 희망카드로 지급되며,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교육 이수를 비롯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사항이 부여된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통해 2ha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연리 2%의 후계농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3억 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 확대를 비롯 지원금 취지에 맞는 자금사용 여부 및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0)



전남도 소식

전남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총력

- 보험료 80% 지원...공익직불제 연계 홍보·제도개선 의견 수렴 -

전라남도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 시작에 따라 농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벼 면적가입률은 전국 67%(10만 2,095ha)로 1위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여름철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등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나 4만 2,000, 농가가 1,013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실제로 해남군 A농가는 5.5ha 면적에 대해 자부담 보험료 38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 태풍피해로 자부담금의 34배인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가입률을 72%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비 70억 원 등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해 가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벼 보험료는 ha당 평균 53만 원으로 농가는 이 중 20%인 10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기인증농가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올해 첫 공익직불제 신청과 연계해 읍면동사무소를 찾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가입은 오는 6월 26일까지며, 지역 농·축협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양·직파불능 보장은 15일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문의 전남도 식량원예과(061-286-6470)

방방곡곡 떠나볼까

남도 축제로 놀러오세요

6월

- 6. 14 ~ 6. 16 무안 황토갯벌축제
- 6. 24 ~ 6. 28 영광 범성포단오제
- 6월 중 해남 해남땅끝수국축제

7월

- 7월 중 구례 썸머뮤직페스티벌
- 7월 중 신안 민어축제
- 7월 중 해남 송호해변여름축제
- 7.16 ~ 7. 19 순천 한중일 미래 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 7. 23 ~ 7. 26 무안 연꽃축제

※ 축제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관광과 061. 286. 5261

향기를 마시고 그윽함에 빠지다

茶의 名家 전남



광양 역전농원

돌배차, 작두콩차 등
blog.naver.com/okgokhealth



강진 도깨비농원

작두콩차, 작두콩티백 등
smartstore.naver.com/kangjinae1004



순천 모후실에서 만난차

녹차, 꽃차 등
tea3557.co.kr



곡성 동리다원

야생차, 건강차 등
smartstore.naver.com/dongridawon

